

2025 수원서베이

행복 수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의 삶의 격차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형안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요 약

■ 행복 수준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의 삶 전반에 격차를 보임

- 청소년의 감정 상태, 정신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습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택까지 뚜렷한 차이 존재
 - 행복감 높은 청소년: 존재 가치감·건강·삶의 만족도가 높고, 도움 받을 사람과 건강 활동 실천율이 높으며, 진로 선택 시 수입·능력·적성 중시 및 자기계발 활동 선호
 - 행복감 낮은 청소년: 불안·우울·외로움·걱정을 더 느끼고, 도움 받을 사람과 식사·수면·운동이 부족하며 진로와 활동 선택 시 적성, 수입, 해외·환경 변화 욕구를 더 중시

정책제언

■ 수원시, 청소년의 '정신건강+생활리듬 회복' 패키지를 저행복 청소년 대상 핵심사업으로 추진

- 학교·청소년기관에서 상담/심리지원과 함께 아침식사 지원, 건강식단 코칭, 수면위생 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묶어 상시 제공

■ '관계 기반 참여'와 '단계형 진로·경험' 프로그램으로 고립 완화와 미래역량을 동시에 강화

- 또래모임·동아리·멘토링 등 소속감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모험 선호를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게 지역 프로젝트·진로체험·직무탐색(멘토)로 연계하여 취업·학업 부담 완화와 자기효능감 회복을 지원

1. 한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수원시 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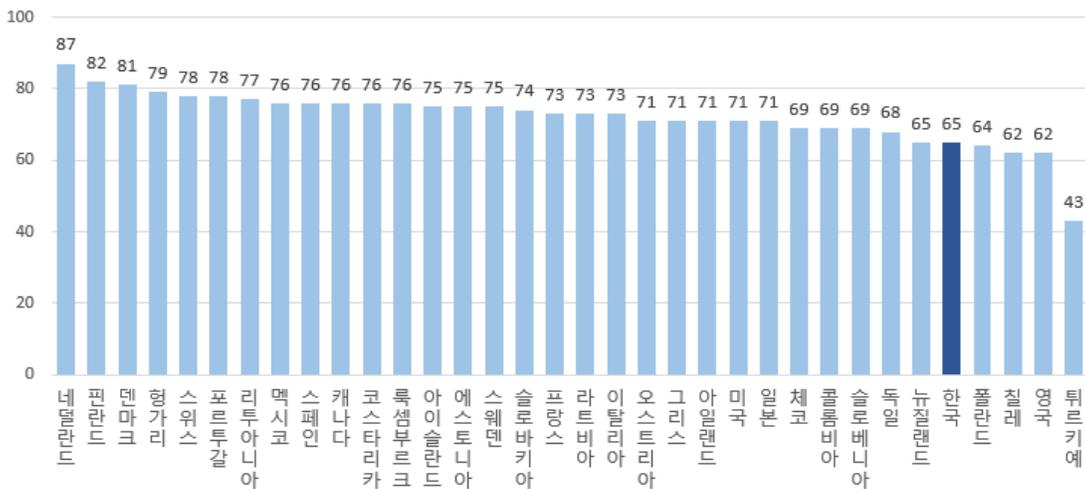
□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 한국 청소년(15세) 삶의 만족도(6점 이상 응답 비율)는 65%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네덜란드가 87%로 가장 높으며, 핀란드, 덴마크 등 전체 인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은 청소년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임. 일본은 71%로 우리나라보다 높고, 영국(62%)과 튀르키예(43%) 등은 한국보다 낮은 편임¹⁾

<OECD 회원국의 청소년 삶의 만족도(2022)>

(단위 : %)



주: 1) (15세 대상)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 중 6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임

2) 미국, 룩셈부르크는 2018년도 값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2025.10.01.)

원출처: UNICEF Innocenti, (2025), "Innocenti Report Card 19: Child Well-being in an Unpredictable World", (OECD PISA 자료 활용)

□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역 U자형 곡선

● 자신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위 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 점수를 종합해 세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66.0점으로 가장 낮고, 중년기를 고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역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임

-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 조사 분석 결과, 3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으로 나타남. 이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U자형 행복 곡선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양상임²⁾

- 청소년의 낮은 행복 수준은 학업과 진로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불확실성, 성적 중심의 평가 환경, 또래 및 온라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제한된 사회·경제적 자활성 등 생애 초기 단계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또한 50대 조기 은퇴, 미비한 사회적 안전망, 노년층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 등 생애 후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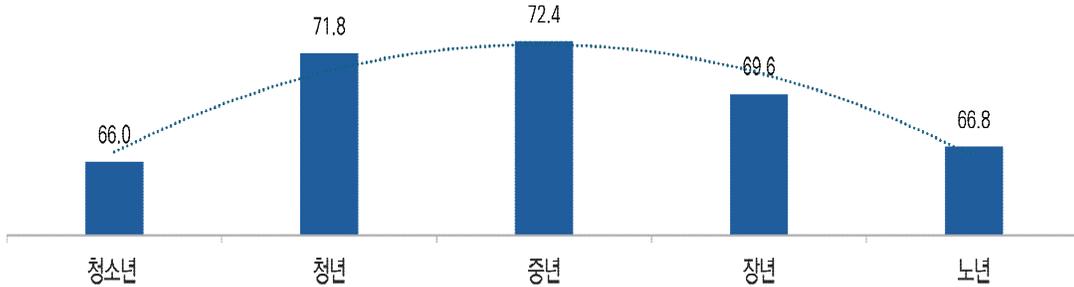
1) 국가데이터처(2025),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91쪽.

2) 한겨레(2024.06.29.), 한국인 행복감 3년 내리 '날개 없는 하락'

구조적 위험 요인과 함께, 청소년기부터 누적되는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와 미래 불안이 전 생애에 걸친 행복 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원 시민의 행복지수(2025)>

(단위 : 점)



주: 청소년(15~18세), 청년(19~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수원시 세대별 행복지수(2025)>

(단위 : 점)

구분	행복지수	영역별 행복 점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청소년	66.0	65.3	59.2	68.5	70.5	66.3
청년	71.8	79.0	62.5	74.6	72.2	70.6
중년	72.4	77.8	66.9	74.2	72.5	70.6
장년	69.6	74.0	63.8	71.8	70.5	67.9
노년	66.8	69.0	60.7	69.7	68.1	66.3

1) 질문 :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 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영역별 행복 점수 : 평균 100점 환산 점수

3) 행복지수 : 5개 영역별 행복 점수의 평균

2. 수원시 청소년 행복지수의 잠재프로파일 분석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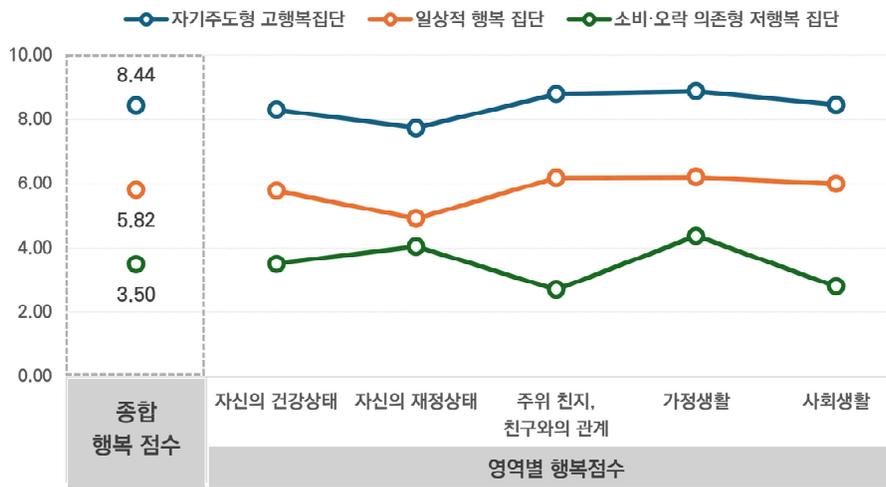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형화

-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행복의 구성 요인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청소년 행복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취약 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행복 격차의 구조적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보다 정밀하게 도출하고자 함
-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일상적 행동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일상적 행복 집단',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으로 명명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 종합 행복 점수가 가장 높고 여가 만족도와 정신·육체적 건강 수준이 우수하며,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고 삶의 자기결정권과 주관적 경제·사회적 지위 인식이 높은 집단임.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디지털 기기는 교육·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심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임

3)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잠재프로파일 분석 참고

- **일상적 행복 집단** : 종합 행복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건강, 여가 만족도, 자기결정권, 스트레스 등이 평균적인 분포를 보이며, 디지털 기기 이용 또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일반적인 이용 특성을 나타냄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 종합 행복 점수가 가장 낮고 삶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관계,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이 낮음. 반면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높으며, 디지털 기기 이용에서는 여가 서비스(영화·게임)와 모바일 결제 등 소비·오락 중심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행복점수>



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형별 문항 평균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잠재프로파일 분석 참고

3. 행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인식과 생활 차이 분석

□ 행복 수준에 따라 삶의 긍·부정적 인식 격차 크게 발생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행복감·존재 가치감·건강·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외로움과 걱정 수준이 높고 긍정적 삶의 인식은 현저히 낮게 나타남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질>

(단위 : %)

구분	긍정 감정				부정 감정	
	행복감	존재 가치감	건강	삶에 대한 만족	외로움	걱정
전체	59.8	57.9	57.5	56.1	29.4	49.5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86.6	86.6	85.4	85.4	19.5	40.2
일상적 행복 집단	48.6	44.1	44.1	42.3	32.4	54.1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14.3	19.0	19.0	14.3	52.4	61.9

질문 : 지난 한 주 동안 각 항목에 대해 느끼셨던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행복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 격차가 매우 큰 편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불안·우울·외로움 등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초조함, 우울감, 흥미 저하, 외로움 등이 85~90% 수준으로 매우 높아 정신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짐

<지난 2주간의 정신건강>

(단위 : %)

구분	초조함과 불안함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우울감 또는 절망감	일(공부)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스트레스	외로움
전체	68.2	60.3	57.5	79.4	80.4	62.6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46.3	36.6	31.7	67.1	69.5	41.5
일상적 행복 집단	81.1	73.0	71.2	86.5	89.2	73.0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85.7	85.7	85.7	90.5	76.2	90.5

질문 :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 위험 뚜렷하게 증가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아플 때·금전적 위기·정서적 어려움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86~90% 수준,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과 금전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크게 부족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두드러짐

<사회적 고립>

(단위 : %)

구분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
전체	7.9	88.8	80.4	79.4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8.5	90.2	86.6	90.2
일상적 행복 집단	6.3	89.2	78.4	75.7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14.3	81.0	66.7	57.1

1) 질문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2) 사회적 고립도 :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

□ 행복 수준에 따라 규칙적인 건강 활동 실천 격차 뚜렷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식단 조절,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등 전반적인 건강활동 실천율이 높음.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모든 건강활동 항목에서 실천율이 낮아, 생활습관 전반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규칙적인 건강활동>

(단위 : %)

구분	아침 식사	식단 조절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건강검진/건강검사
전체	67.3	57.5	65.9	57.5	47.2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65.9	67.1	72.0	65.9	46.3
일상적 행복 집단	71.2	53.2	64.9	53.2	50.5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52.4	42.9	47.6	47.6	33.3

질문 : 귀하는 평소 다음 항목의 활동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 행복이 낮은 집단일수록 개인적 사회참여 활발, 단체 참여는 '보통 행복' 집단이 가장 높음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의 자원봉사와 기부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 개인 차원의 사회참여가 활발함. 단체 참여는 보통 행복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사회참여>

(단위 : %)

구분	사회참여		참여 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한 적이 있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적이 있다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전체	43.5	43.0	28.0	28.0	21.5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41.5	37.8	23.2	24.4	17.1
일상적 행복 집단	43.2	45.9	32.4	30.6	24.3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52.4	47.6	23.8	28.6	23.8

질문 : 귀하는 지난 1년간 각 활동에 대해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 행복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삶의 가치 인식이 다양하고 균형적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경제적 수입·자신의 능력·적성을 중심으로 향후 일자리를 선택하며, 사회적 지위 (4.9%)나 직업의 장래성(3.7%) 등도 비교적 고르게 고려함.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적성과 수입에 편중됨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직업의 장래성, 의사결정권,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향후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음

<향후 일자리 선택 기준>

(단위 : %)

구분	자신의 능력	사회적 지위	대중적 인기	안정성	직업의 장래성	의사 결정권	경제적 수입	창의성 발휘	자신의 적성	자아 성취	사회 기여도
전체	15.9	3.7	3.3	15.0	1.9	0.5	27.1	1.9	23.4	5.1	2.3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19.5	4.9	4.9	14.6	3.7	1.2	25.6	1.2	15.9	4.9	3.7
일상적 행복 집단	12.6	3.6	2.7	16.2	0.9	0.0	27.9	1.8	27.0	5.4	1.8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19.0	0.0	0.0	9.5	0.0	0.0	28.6	4.8	33.3	4.8	0.0

질문 : 향후 일하고 싶은 일자리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 행복 수준에 따라 선호 활동의 방향성 뚜렷한 차이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직업·진로, 과학·정보 등 자기계발형 활동 선호.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제교류 활동을 선호해 일상 탈피나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짐

<가장 하고 싶은 활동(1순위)>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국제 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 보존
전체	47.7	7.9	7.9	7.9	12.1	8.9	2.3	3.3	1.9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50.0	12.2	6.1	6.1	13.4	6.1	1.2	2.4	2.4
일상적 행복 집단	47.7	5.4	9.0	9.9	11.7	8.1	3.6	3.6	0.9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38.1	4.8	9.5	4.8	9.5	23.8	0.0	4.8	4.8

질문 :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4. 요약 및 시사점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의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과 정신건강 취약성이 높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실천도 전반적으로 낮음

- 정서적 불안과 생활 리듬의 불안정이 상호 강화되며 행복 저하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불안·우울·외로움·걱정이 높게 나타나며, 아침 식사·식단 조절·적정 수면·규칙적 운동 실천율도 모두 낮음
 - 이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이 정신건강 문제와 생활습관 취약이 결합된 복합적 위험 상태임을 시사
-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식사·수면·운동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건강 개입 필요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이외에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지원하거나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건강 개입 사업 추진 필요

(사례) 서울시 서초구, 청소년 아침식사 실천 및 건강 식생활 캠페인

- 등교 시간대 서울고와 세화고 교문 앞에서 건강 식단과 나트륨 및 당 함유량을 설명하는 패널을 전시하고, 아침밥 먹기 리플릿과 저당 에너지바 배부
- 현수막과 피켓 홍보 활동과 함께 사진 이벤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독려



출처 : 서초구 보도자료(2025.10.28.) 건강한 하루를 여는 습관! 서초구, '청소년 아침식사 실천 및 건강식생활 캠페인' 실시

□ 행복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 위험은 크고, 사회참여는 '개인적 참여'에 머무는 경향

- 정서적 지지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속 활동보다 일회성·개인 차원의 참여에 머무
 -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은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과 위기 시 도움 자원이 부족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큼
- 지자체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에 그치지보다, 또래 관계 형성·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소규모 모임·동아리·멘토링 등 '지속적 관계 기반 참여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번의 단발적 참여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지속 할 수 있는 구조 강화 필요
 - 성장 주기별 도전 또는 자기 도전 챌린지 등 청소년 지원 시 사회적 교류를 동반한 활동을 필수 이수 요소로 포함하거나 동아리 단위의 참여 및 지원 고려 필요

(사례) 경기도 시흥시, 청소년 종합성장지원 프로젝트,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

- 시흥시 청소년이 성장주기별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도전과제 이수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흥시 청소년 종합 성장 지원 프로젝트(운영 총괄기관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 2025년에는 ▲골드(2013년~2015년생, 45명) ▲플래티넘(2010년~2012년생, 58명) ▲마스터(2007년~2009년생, 60명) ▲드림(2001년~2006년생, 20명) 총 네 개 단계로 모집
- 청소년 환경마라톤, 시흥 대탐험, 수기 공모전, 성장 보고회, 단계별 청소년이 직접 개발하고 싶은 역량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리더십 ▲문화감수성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 ▲지역사회참여 ▲진로 ▲환경의식) 등으로 구성



출처 : 시흥시 보도자료(2025.3.7.)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돕는다

□ 행복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일자리 선택 기준과 선호 활동이 '안정·성장' 대 '탈출·변화'로 대조를 보임

- 행복 수준 차이가 미래에 대한 인식과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로 이어지며, 진로·활동 선택의 방향성 결정
 -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은 능력·적성·수입을 중심으로 지위·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며, 문화·예술·과학·진로 등 자기계발형 활동을 선호함
 - 반면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의 국제교류·모험 활동 선호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됨

● 지자체는 이를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진로 탐색·역량 형성으로 연결되는 단계적 경험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적성 검사, 1일 체험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 멘토링 및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 필요
- 관내 대학, 기업,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 탐색 및 역량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속 필요

(사례) 경기도 용인시, 자산학 협력 통해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교육 시행

- 중고등학생 대상 3일간(25.8.6~8) 반도체 산업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총 72명(중학생 37명, 고등학생 35명) 참여(137명 신청, 1.7대 1의 경쟁률 기록)
- 이론 강의 : 경희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강사로 참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눠 진행, 고등학생 과정에는 경희대 입학사정관이 참여한 진학 특강 포함
- 산업체 현장 탐방 : 수원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SIM)에서 반도체 기술 발전사 체험, (주)서플러스글로벌에서 임원 특강과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투어 진행
- 협력체계 : 용인특례시 예산 지원과 기업 연계, 경희대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용인교육지원청 '미리아이공유학교'를 통한 교육생 모집과 성과 관리, (주)서플러스글로벌은 산업체 프로그램과 임원 특강 제공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2025.8.10.) 용인특례시, 자산학 협력 통해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교육' 진행 - 6일부터 3일간 72명 참여...반도체 산업 이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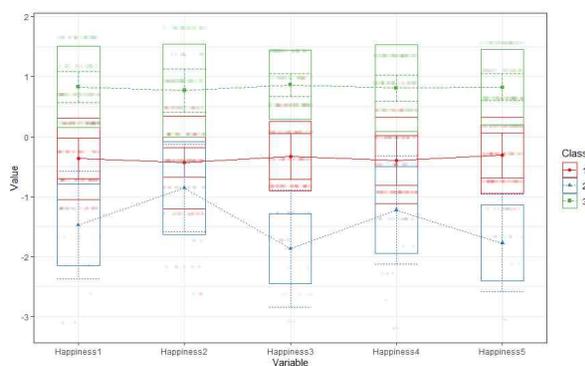
부록 잠재프로파일 분석

- **(목적)** 인식이나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값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형화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화 방법(요인·군집·판별분석)은 관찰된 값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의 응답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추정하는 개인 중심적 접근의 잠재프로파일분석(LPA/LCA)이 주목받고 있음¹⁾
- **(분석 모형: 적합도와 분류 안정성 고려 3집단 모형 타당)** 수원시 청소년의 5개 영역별 행복도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파악함.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AIC, BIC, SABIC), 차이 검증(BLRT), 분류의 질(Entropy), 그리고 집단별 분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집단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설정함
 - AIC와 BIC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형의 적합도가 집단 수 증가에 따라 개선됨을 의미함. 다만 정보지수는 집단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차이 검증, 분류의 질을 검토함
 -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지수는 5집단에서 가장 높으나 일부 집단의 분류율이 낮아 안정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반면, 3집단 모형의 엔트로피 지수는 0.87로 비교적 높고 분류율도 각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집단 구조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형성됨

<부록 표1.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구분		잠재집단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2682	2574	2499	2470
	BIC	2736	2648	2593	2584
	SABIC	2568	2578	2505	2476
χ^2 차이검증	BLRT(p값)	0.50	0.50	0.38	0.35
분류의 질	Entropy	0.83	0.87	0.84	0.88
	집단1	0.495	0.504	0.38	0.345
분류율(%)	집단2	0.504	0.402	0.33	0.018
	집단3		0.093	0.03	0.327
	집단4			0.26	0.033
	집단5				0.276

<부록 그림1. 잠재집단별 영역별 행복점수>



부록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록 표2. 집단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잠재집단 (N=214)			통계량	
	자기주도형 고행복 집단 (A) N=82	일상적 행복 집단 (B) N=111	소비·오락 의존형 저행복 집단 (C) N=21		
연속형 변수		Mean (SD)	Mean (SD)	Mean (SD)	F
종합 행복 점수		8.44 (0.87)	5.82 (0.80)	3.50 (1.19)	357.39 ***
영역별 행복 점수	자신의 건강상태	8.30 (1.26)	5.79 (1.53)	3.52 (1.72)	120.58 ***
	자신의 재정상태	7.74 (1.76)	4.92 (1.66)	4.05 (2.04)	75.81 ***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8.80 (1.07)	6.19 (1.32)	2.71 (1.55)	227.62 ***
	가정생활	8.88 (1.19)	6.21 (1.74)	4.38 (2.09)	99.28 ***
	사회생활	8.46 (1.22)	6.00 (1.38)	2.81 (1.60)	173.11 ***
종합 디지털 기기 이용 빈도		3.35 (0.46)	3.15 (0.56)	3.14 (0.72)	3.24 *
디지털 기기 이용 빈도	생활정보 서비스	3.62 (0.56)	3.39 (0.82)	3.26 (1.05)	2.90
	전자상거래 서비스	3.22 (0.83)	3.13 (0.84)	3.05 (1.13)	0.36
	금융거래 서비스	3.51 (0.68)	3.34 (0.79)	3.16 (1.12)	1.91
	공공 서비스	2.38 (1.08)	2.10 (0.97)	1.95 (1.03)	2.3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71 (0.51)	3.47 (0.81)	3.42 (0.90)	2.86
	여가 서비스	3.57 (0.63)	3.47 (0.77)	3.68 (0.75)	0.91
	교육학습 서비스	3.28 (0.80)	3.01 (0.89)	2.89 (1.10)	2.72
	모바일 결제	3.49 (0.75)	3.28 (0.80)	3.68 (0.75)	3.05 *
사교육 시간		1.30 (0.46)	1.26 (0.44)	1.45 (0.51)	1.56
전반적 여가 만족도		5.94 (1.05)	4.74 (1.08)	4.52 (1.66)	30.06 ***
정신적·육체적 건강		3.60 (1.23)	2.96 (0.91)	2.52 (1.03)	12.79 ***
스트레스		2.24 (1.07)	2.67 (0.97)	3.00 (1.30)	6.16 **
건강실천도		2.81 (0.67)	2.65 (0.65)	2.34 (0.79)	4.33 *
삶의 자기결정권		5.40 (1.32)	4.26 (1.16)	3.95 (1.60)	22.75 ***
주관적 계층의식		2.54 (0.69)	2.16 (0.75)	1.90 (0.83)	9.22 ***
범주형 변수		N (%)	N (%)	N (%)	χ^2
성별	남	45 (45.00)	46 (46.00)	9 (9.00)	3.56
	여	37 (32.46)	65 (57.02)	12 (10.53)	
주택유형	아파트	63 (37.50)	87 (51.79)	18 (10.71)	0.78
	아파트 외	19 (41.30)	24 (52.17)	3 (6.52)	
고립 여부	고립	7 (41.18)	7 (41.18)	3 (17.65)	1.60
	비고립	75 (38.07)	104 (52.79)	18 (9.14)	

- 1)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표준편차),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백분율)를 제시함
 2) F값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χ^2 값은 교차분석(Chi-square test) 결과임
 3) * p<0.05, ** p<0.01, *** p<0.001

1) 이민주, 박민진(2022),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도시연구 제21호(2022.6), pp.227-271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수원시 거주 가구 내 만 19세 이상 성인 3,000명 및 청소년 200명
- ✓ 조사 기간 : 2025.08. ~ 11.
- ✓ 조사 방법 : 면접원 가구방문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 설문 내용 : ① 일과 지역경제 기반, ②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③ 일상생활에서의 힘과 삶의 만족감 등 3개 영역 14개 분야 조사

※ 본 간행물은 SRI-2025-전략-21 「2025 수원서베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태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